민 족 문 화 경 전 이 야 기 총 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 族 文 字 出 版 专 项 资 金 资 助 项 目

만족

Mǎnzú

满族

편 자 왕 리
역 자 김순저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顺姐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满族：朝鲜文 / 王莉编；金顺姐译.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54-3

Ⅰ. ①满… Ⅱ. ①王… ②金… Ⅲ. ①满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 ①K282.1-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5999号

满族
MAN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54-3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举报电话：024-23284336
版权专有　侵权必究
邮购电话：024-23284335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联系电话：024-23284340
网址：www. lnmzcbs.com
淘宝网店：http://lnmz2013. taobao. com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츠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쟈족)　　전산천
정 아(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쫭 족)
왕해연(챵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목 록

제1장 만족의 력사

만족 기원에 관한 전설 /9
관동 삼보에 관한 전설 /13
소년 아구다에 관한 이야기 /17
누르하치에 관한 이야기 /23
소년 강희에 관한 이야기 /29

제2장 만족의 생활습관

치포의 유래 /31
굽높이나막신의 유래 /35
쉬룬장대에 관한 전설 /43
썰매에 관한 이야기 /47

제3장 만족의 인생궤도

결혼때 쭤장풍습의 유래 /51

아기를 매달아 키운다——관동 괴이한 일 /55
사부수가 순장풍습을 없애다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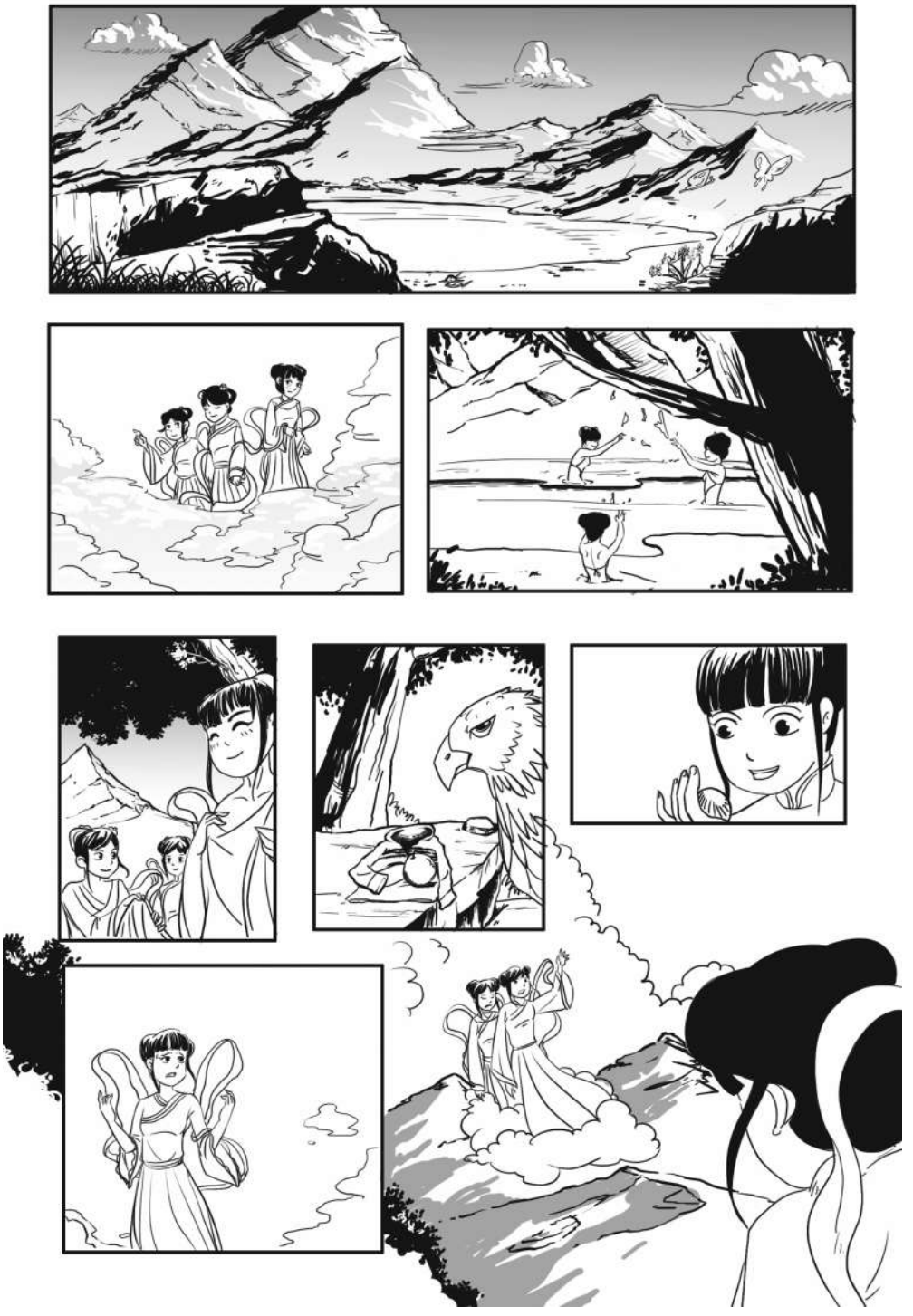
제4장 만족의 세시명절

만족 제사용수고에 관한 전설 /65
정월 보름 얼음등불놀이에 관한 전설 /69

제5장 만족의 전통오락활동

찐우주와 가라하에 관한 전설 /73

참고문헌



제1장 만족의 력사

만족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며 순박하고 용감한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4천여년의 력사를 갖고있다. 2000년 전국인구조사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는 1068만명이며 한족과 쫭족의 다음으로 간다. 주로 동북3성에 분포되여있으며 북경, 하북, 내몽골자치구, 신강위글자치구 등에도 분포되여있다.

만족은 본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갖고있다. 만족문자는 누르하치의 명령하에 몽골문자에 의거하여 창제되였는데 1632년 달해(达海)가 가일층 수정하여 지금의 형태를 구비하게 되였다.

만족의 조상들은 대대로 백산흑수("백"은 장백산, "흑"은 흑룡강을 가리킴)의 광활한 대지에서 생활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만족의 조상은 주진(周秦)나라때의 숙신인(肃慎人)이며 고서에는 숙신인을 "동북이"(东北夷)라고 칭하였다. 만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만족 기원에 관한 전설

장백산동북쪽의 부쿠리산(布库里山)아래에 맑고맑은 호수가 있었다. 첩첩한 산봉우리가 푸른 호수를 둘러싸고있는데 더운 여름이 되면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물우에 비치고 호수가에서는 나비가 날고 새들이 노래부르고있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에 하늘의 세 선녀가 내려왔다. 그들은 자매였는데 큰언니는 은구룬(恩古伦), 둘째언니는 정구룬(正古伦), 셋째는 푸구룬(佛古伦)이라고 했다.

세 자매가 호수가에 다가가 보니 물속에는 하늘이 있고 구름이 떠돌며 새가 날아다니고 나비가 춤을 추고있어 천궁보다 더 아름다왔다. 너무 흥분된 나머지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물속에 뛰여들어가 놀았다. 잔잔하던 호수는 물보라가 튕기고 물결이 출렁거리고 그들의 웃음소리도 간간이 들려왔다.

세 자매는 한참 놀다가 피곤하여 호수가에 올라와 쉬였다. 이때 매 한마리가 주둥이에 빨간 과일을 물고 날아와 셋째의 치마자락에 떨어뜨리고는 날아갔다. 푸구룬은 조심스레 그 빨간 과일을 주었는데 특이한 향기가 풍기고있었다. 땅에 놓으면 더러워질것 같고 들고있자니 옷을 입을수가 없어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입에 물었다. 그러자 과일은 훌떡 배안으로 들어갔다. 기침을 하면서 뱉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거워지면서 주문을 아무리 외워도 날아오를수가 없었다. 큰언니와 둘째언니는 셋째를 자세히 살펴본후 "이것은 하느님이 잉태하게 하신것이니 아이를 낳고 몸이 가뿐해진후 올라오너라."라고 말하고는 셋째와 작별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두 언니가 떠난후 푸구룬은 호수가에 남게 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날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태여나자마자 말을 하고 며칠이 지나자 튼튼하고 이목구비가 빼여난 사나이로 자랐다. 푸구룬은 부쿠리융순(布库里雍顺)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성은 애신줴뤄(爱新觉罗)라고 했다.

어느날 푸구룬은 나무배를 만들어 아들을 태운후 그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다. "아들아, 너는 매신의 후손이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너를 낳은것이니 너는 반란을 평정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하느니라. 얘야, 하느님께서 맡긴 임무를 꼭 완성해야 하느니라." 말을 마친후 아들의 손을 놓고 배를 물가운데로 힘껏 밀었다. 배는 부쿠리융순을 태우고 물길을 따라 내려갔고 푸구룬은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갔다.

부쿠리융순은 어머니가 말한대로 배를 타고 하류로 내려갔다. 격류에 배는 쏜살같이 천리나 떠내려갔다.

장백산동남쪽 목단강과 송화강의 합류점에 자그마한 고을이 있었는데 세 씨족이 살고있었다. 그들은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종일 싸움만 하다보니 죽고 상하는것은 다반사였다. 그중 한 씨족의 수령인 배리(百里)가 점쟁이한테 "언제 전쟁이 끝날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점쟁이는 "멀지 않았습니다. 천지(天池)연안에서 자란 영웅인 부쿠리융순이 빠른 시일내에 배를 타고 여기로 올겁니다. 그가 도착하는 날이 바로 이곳의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부터 부쿠리융순이라는 이름이 사방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가 하루빨리 나타나 자기들을 구해줄것을 기다렸다. 백성들은 전사자를 묻을 때마다 왜 부쿠리융순이 올 때까지 지탱하지 못했느냐고 탄식했다. 또 사람들은 인사를 나눌적마다 부쿠리융순이 오면 평화로운 생활을 할수 있으니 열심히 살자고 하면서 서로 격려했다.

어느날 배가 이 고을에 도착했다. 한 사나이가 보고 뛰여가 배리에게 일렀다. 배리가 사나이를 따라 호수가에 와서 "성함은 무엇이오?"라고 물으니 부쿠리융순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녀 푸구룬이 낳은 성은 애신줴뤄이고 이름은 부쿠리융순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금후 다시는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후부터 여기에서는 전쟁도 평정되였고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부쿠리융순은 이 민족의 수령이 되였고 배리의 딸 버리거거(勃利格格)를 안해로 맞이했다. 후에 그들의 자손들은 부쿠리융순을 만족의 조상으로 모셨다.

백산흑수하면 관동 삼보(关东三宝)가 생각난다. 그럼 관동 삼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관동 삼보에 관한 전설

한왕(누르하치)은 허투아라성(赫图阿拉城, 지금의 료녕성 신빈만족자치현 영릉진)에서 한(汗, 고대 군주통치자의 명칭)으로 칭한후 여러 신을 봉했다. 쮀하잔(缀哈占)할아버지를 장백산신으로 봉하고, 푸둬(佛朵)어머니를 녀신으로 봉하고, 애신투무둬리스둬리(爱新秃木都立思都力)를 불의 신으로 봉했다. 그런데 인삼, 담비모피, 우라초(乌拉草)를 깜박 잊었다.

이날 인삼거거(格格, 공주 또는 아가씨), 담비아거(阿哥, 형님이나 왕의 아들), 우라초투띠(突弟, 아우)는 이 소식을 듣고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세 남매는 "한왕이 등극할 때 우리도 많은 공을 세웠고 녀진족(女真族)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바쳤는데 우리를 잊었구나,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인삼거거는 "건주 녀진이 발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바쳤는가? 녀진인들이 우리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캐다가 명나라 장에서 소, 쇠붙이, 피복, 보석, 병기와 바꾸지 않았는가?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한왕은 우리를 잊어버렸단말인가!"라고 말했다.

담비아거는 "그래 맞아. 그때 녀진인들은 쇠붙이가 없어 밥을 지을 가마조차도 없었어. 한 가마의 담비모피로 쇠가마를 하나 바꿀수 있었어.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죽음을 당했는가!"라고 말했다.

우라초동생은 형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우리 생김새는 그리 눈에 띄지 않고 값도 없지만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 우리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신발은 겨울에 싸움은커녕 일상생활도 할수 없었을거야. 그 엄동설한에 우리가 없었더라면 발은 얼어 떨어졌을거야."라고 말했다.

세 남매는 너 한마디 나 한마디 하다가 우라초동생이 묘안을 찾아냈다. 쮀하잔할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는것이였다. 그들은 장백산에 도착한후 쮀하잔할아버지에게 찾아온 의도를 말했다. 쮀하잔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한왕이 어찌 너희들을 잊었을가? 그러나 지금 그는 천자니 직접 말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한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너희들에게 칭호를 봉하도록 해야지."라고 말했다.

쮀하잔할아버지는 계절돌림병이 돌게 하였다. 그러자 계절돌림병은 한왕의 대궐까지 전파되였다. 그리고 한왕이 제일 사랑하는 후진(福晋, 안해)의 방에도 전염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진은 온몸이 쓰리고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몇몇 어의도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났다. 한왕이 한창 안전부절 못하고있을 때 한 추장이 천년 인삼을 올렸다고 했다. 한왕은 매우 기뻐했다. 이상하게도 후진이 그 인삼탕약을 마신후 나은것이였다. 한왕은 매우 기뻐서 "이 인삼이야말로 보배이구나."라고 감개무량해했다.

이어서 쮀하잔할아버지는 또 다른 술법을 썼다. 그때는 삼복철이였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찬 북풍이 불고 큰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순간에 고을내에는 온통 눈에 쌓였다. 이 뜻밖의 기후변화에 너무 추워서 장병, 관리, 백성할것없이 너도나도 옷궤를 뒤지며 겨울에 입는 담비모피와 우라초(동북지역에서 겨울에 신는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고 안에는 우라초를 깔았다)를 찾았다. 한왕궁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로불을 피웠다. 한왕은 담비모피옷을 입고 우라초를 신발에 까니까 따뜻해졌다. 한왕은 지금 병사들이 전선에 있지 않는가? 이런 추운 날씨에 얼어죽지나 않을가 걱정되였다. 그는 바로 명령을 내려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모피옷과 우라초 등 방한물품들을 보냈다. 특히 대량의 우라초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때 쮀하잔할아버지는 세 남매한테 "한왕이 드디여 너희들을 생각하게 되였구나.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봉하는가를 볼 차례이다."라고 말했다. 엄동설한을 하루 지속하게 한후 쮀하잔할아버지는 술법을 걷어들였다. 기후도 원래대로 돌아갔다.

한왕이 이 일을 겪은후 생각하다생각하다가 끝내 깨닫게 되였다. 그는 신하들에게 "옳지, 나를 도와 건국에 공을 세운데는 인삼, 담비모피, 우라초 등 관동 삼보도 있구나."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관동 삼보에 관한 속담이 퍼졌다.

료녕, 길림, 흑룡강 삼성과 내몽골자치구 동부지역과 북부지역을 아울러 관동이라고 칭한다. 관동 삼보는 "구삼보"와 "신삼보"로 나뉜다. "구삼보"는 인삼, 담비모피, 우라초를 가리키고 "신삼보"는 인삼, 담비모피, 록용을 가리킨다.

만족은 부동한 조대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갖고있었다. 진한(秦汉), 삼국(三国)시기에는 읍루(挹娄)라고 했고 위진(魏晋), 남북조(南北朝)시기에는 물길(勿吉)이라고 했으며 수나라, 당나라때에는 말갈(靺鞨)이라고 했고 당(唐), 료(辽), 금(金), 원(元), 명(明)나라때에는 녀진(女真)이라고 불렀다. 그럼 녀진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소년 아구다에 관한 이야기

료나라때 료황제는 항상 흑룡강 녀진부락에 파병하며 공물을 징수하게 하였다. 그곳의 말이며 담비모피며 인삼이며 모두 료나라 사병들에게 략탈되였다. 녀진인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면 사병들이 말을 타고 와 짖아버리고 심지어 채찍으로 후려갈기기도 했다. 후에는 녀진인들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는것이 하나의 놀이로 되였다.

완엔아구다(完颜阿骨打)는 철이 들어가면서 료나라 사병들을 증오하게 되였고 녀진인을 위해 영예를 떨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3살때 적지 않은 책을 읽었고 활쏘기기법도 잘 익혀 말을 타고 날아가는 수리를 쏠수 있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마다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어느날 아마(阿玛, 만족어로 아버지라는 뜻)는 어냥(额娘, 만족어로 어머니라는 뜻)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아구다는 아이가 아니니 집을 떠나 스승을 모시고 기예를 배우도록 해야 하겠소.” 어냥은 그 말을 듣고 아직 어리다고 승낙하지 않았다. 아마는 또 말했다. “큰나무아래 풀이 잘 자랄수 없으니 지금 스승을 모시고 식견을 넓히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런 출세도 할수 없소. 래일 장백산으로 보내야겠소.” 문밖에서 듣고있던 아구다는 방으로 뛰여들어가 부모에게 절을 올린 후 “저는 이미 다 컸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꼭 기예를 잘 배워 녀진인들을 위해 원쑤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냥은 이 말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승낙해주었다.

떠날 때 아마는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온 칼을 내주었고 어냥은 필수품들을 챙겨주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느며 간난신고끝에 드디여 장백산에 도착했다. 아구다가 소나무숲옆에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사람 살리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달려가 보니 한 할아버지가 큰 곰에게 밀려 넘어져있었다. 곰이 몸뚱이를 돌려 그 할아버지 몸에 콱 앉으려는 순간 칼을 빼서 힘껏 던지자 면바로 곰의 목을 찔렀다. 곰은 “억”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지고말았다.